

행복한 금요 편지

용서와 배려

김종근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¹⁾

연습도 없고 대본도 없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용서와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못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 용서를 받아주는 넉넉함과 내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은 우리가 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배우고 갖추어야 할 정신적인 것들이다.

얼마 전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중고서점에 들렸다. 책장을 뒤적이다가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다. 잠시 머뭇거리다 '행복이야기'를 꺼내 목차를 읽어보았다. 맨 마지막 장 '베푸는 마음'이 눈에 들어왔다. 이왕 서점에 들어왔으니 뭔가 마음에 담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살펴보았다.

사람에게는 타인을 배려하는 7가지를 갖고 있다. 이를 '무재칠시'(無財七施)라고 한다. 칠시(七施)는 '안시'(眼施), '화안열색시'(和顔悅色施), '언사시'(言辭施), '심시'(心施), '상좌시'(床座始), 방사시(房舍施)를 말한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베푸는 마음은 선물이다. 흔히 베푼다고 하면 물질을 주는 것을 생각한다.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사람은 타인에게 베푼 수 있는 배려 중에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이 있고, 자비롭고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김종근 박사는 삼성국제경영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미소 띤 얼굴이 있다. '언사'(言辭)는 사람이 탐욕에 의해 짓는 열 가지 업(業)이 있는데, 그 중 구업(口業)이 무려 4가지나 된다고 한다. 온전하게 언어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의(etiquette)는 중요하다. 예의는 곧 배려다. 선진국민이 되기 위한 필요한 태도이기도 하다.

배려는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태도나 말에 예의가 있다 해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피로사회에서는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양극화로 사회적 피로감과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다 보면 잦은 충돌이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난다. 사회가 변하면서 방사(房舍)의 의미는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자신의 것을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배려는 서로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심어주고, 관계를 잇는 소중한 긍정바이러스인 셈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톱니바퀴처럼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면서 상호관계하려면 그 사이에 윤활유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윤활유는 서로에 대한 배려다. 우리사회는 역동적이지만 좀 부족한 점들이 있다. 남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할까? 배려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야 사회를 공유하는 무형자산이며 자유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하는 윤활유이다. 배려하지 않고 부딪치면 다른 소유들이 파괴된다.

외국인들은 한국문화와 한국인에 대해 자주 말하는 것들이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타인을 배려하는 좋은 습관과 제도가 정착되어야 함이다. 세계화를 말하고 지구촌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사회생활에서 남에 대한 배려 없이 살아가면 무엇이 잘 되겠는가? 한 나라의 국민소득만을 가지고 선진국이라거나 중·후진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배려를 '예의'라고 생각한다. 부족함 속에는 남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

우리 사회는 혼란이나 위기 상황에서 남에 대한 배려가 많으면 저절로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제는 우리의 정신적인 소유 속에 용서와 배려라는 사회적 윤활유를 정착시킬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경제만이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배려와 용서가 진정한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